

바람직한 미래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 방향 연구

권 은 주(대원)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불교어린이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우리 사상과 문화에 젖어있는 불교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교와 어린이 교육 간의 접목의 필요성과 목적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불교적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넓은 개념을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1.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현대교육에 적용한다. 팔정도, 육바라밀, 사섭법, 삼학 등은 교육의 근본이 된다.

2. 불교 어린이교육은 발달에 적합하고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 포교활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3. 사찰뿐 아니라 어린이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불교 어린이교육을 체계화하여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적 환경구성, 불교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불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불교어린이 교육은 현대교육과 따로 떨어져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융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불교인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의 긍정적인 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린이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해답이 되는 종교인 불교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그 본질이다.

핵심 주제어 : 불교 어린이교육, 포교

I. 서 론

불교는 연기론적인 인간이 교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전에서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바른 가치를 대화법, 문답법, 그리고 비유법 등을 포함하는 수기법(隨機法)으로 설하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순수한 본성을 되찾음으로써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어린이도 수행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 업(業)을 개선하고 불성(佛性)을 발휘하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체적인 생명력의 강조는 불교의 근본가치관인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따라서 아동도주체적인 인격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파악하고 단지 능력, 개성, 사고에는 차별이 있어도 그대로 개인이 하나로 자유롭게 태어나서 평등하게 취급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서로 도와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존재²⁾인 것이다. 또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B.C. 428~348)은 ‘아주 어리고 연약한 생의 초기인 유아기는 성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쉽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여 유아기의 특성과 중요성을 말하였다. 몬테소리 역시 유아기를 어떤 특징적인 환경에 몰입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는 일정한 시기로 ‘민감기’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유아기 경험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교성의 발달 또한 대부분의 다른 발달 영역과 마찬가지로 생애 초기에 그 기초가 확립되며, 이 때 확립된 종교적인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어릴 때 불교적 환경과 교육은 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의 아동이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은 스스로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우주관과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업인(業因)에 의해 아직 미혹하므로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교육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애 초기의 환경과 교육이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종교교육 방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는 전통적인 교육 접근의 장점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현재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합하고, 어린이 교육에 요구되고 있는 책임 문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³⁾, 여기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우리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주어진 불교를 바탕으로 아이들 발달에 적합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1) 권은주, 《불교아동학개론》, 서울: 양서원, 1998. p.17.

2) 권정임,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4. p.84.

3) J. Amos Hatch, Teaching in the New Kindergarten, Thomoson, 2005, p.3.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포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어린이 포교를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교 어린이 교육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과 전문성, 교재·교구, 교육체계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 포교는 1970년 어린이 법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어린이지도자연합회도 이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⁴⁾. 따라서 불교 어린이 교육은 불교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의 교육과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변화하여 포교의 저변확대를 이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교와 어린이 교육의 실천원리와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소로서 가정, 사찰, 교육기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 불교 어린이교육과 포교방향을 두 가지 측면, 즉 불교와 현대 어린이교육의 접목과 불교 어린이 포교활성화에 적합한 교육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불교와 어린이 교육

1. 교육의 실천원리 및 방법

1) 교육의 실천원리

(1) 상호관계성에 의한 교육

불교의 기본 사상에서 보는 인간은 연기론(緣起論)적인 존재이다. 연기(緣起)란 인(因)이 있으면 반드시 과(果)가 있으며, 과(果)에는 반드시 인(因)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일어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인과(因果)의 상호관계의 법칙으로 불교의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것도 모든 현상들도 언제나 연기적인 상호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드라의 그물망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그물들은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물 전체, 우주 전체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 하나 하나는 개체 존재임과 동시에 우주적 존재로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불교 어린이교육에서는 교사와 어린이, 어린이와 어린이, 주변 동식물 또는 수업현장에서 부딪히는 교구와의 만남 등 모든 만남은 우연히 맺어진 관계가 아닌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주적 존재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만남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에 따르는 결과로서의 인과 법칙에 따라 교사는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책임감이 따른다.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바로 자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도덕성 형성을 위한 기초는 물론 어떤 결과를 유추하는 과학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는 단지

4) 유영란, 불교 어린이 법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1.

행위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난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개인의 성질 등의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불교 교육에서의 어린이들은 업에 의해 윤회하는 존재로서, 상호관계로 맺어진 모든 인연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 작용은 상호 존중으로 이어져서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된다.

(2) 다양성 및 융통성에 기초한 환경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계속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좋은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못하면 좋은 유전적 요소들이 최대로 발현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 하더라도 유전적인 요소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불교의 인생관에서 보면 인간의 생은 단지 한 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六道輪廻)하는 가운데 인연에 의해 만나 현생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래서 불교의 태아교육은 부모와 태아와의 교육만으로 볼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라는 생물학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태아의 발생까지 다겹 다생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과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넓은 관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의 모든 주변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수태로 인하여 태아가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환경만이 어린이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자신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은 물론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각각의 환경은 그것 자체로 유일한 것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상적이거나 하나의 모델로서의 표본은 있을 수 없다⁵⁾.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차가 크다. 그래서 어린이교육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인지 수준에 맞추어 차별화된 개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재 어린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불교 어린이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의 연령에 따라, 개별적 수준에 따라 교육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가진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의 발현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돕고 있다.

(3)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의지를 기르는 교육

불교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 책임성과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자각의 종교이다.⁶⁾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개개인의 의지이다.

5) Ann Miles Gordon & Kathryn Williams Browne, *Beginnings & Beyond*, Thomson Learning press, 2004, p.330.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 중생들에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지만, 진리를 보고 깨닫는 일은 스스로의 의지에 맡겼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의 태도를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으로 규정하여 자신과 법을 등불삼아 끝없이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타력적 구원이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실천수행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뜻하는 것으로 수행자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

불교에서 보는 어린이는 불성을 소유한 가능성의 존재로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어린이가 가진 깨달음을 향한 ‘의지’와 ‘창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린이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독창적인 심리적 사고를 지니며, 자신의 의지와 창의성으로 보다 나은 발달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⁸⁾ 그래서 불교 어린이교육에서는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지를 기르는 교육을 강조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어린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도록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불교에서 인간은 그의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윤회의 고통을 끊는 궁극적인 발달목표를 향해 도덕적인 삶,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 성장에 재능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본다.⁹⁾ 이러한 연유에서 불교 어린이교육에서는 어린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발성을 부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어린이의 가능성과 능력을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인간 행동의 계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서의 교육의 주체는 곧 어린이 자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자신의 의지와 욕구인 것이다.

어린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무한의 세계이다. 어린이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은 환경 안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

2) 교육방법

(1)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불교 어린이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물론, 불교 사상을 기초로

6)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 출판부, 2002, p.314.

7) 고기도 저, 홍사성 역, <불교 입문>, 서울: 우리출판사, 1988, p.156.

8) 권은주, 앞의 책, p.47.

9) 위의 책, p.89.

하여 구성되는데, 불교의 사상은 불교의 경전을 근거로 한다.

다양한 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교육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내용은 주로 팔정도(八正道), 사섭법(四攝法), 육바라밀(六波羅蜜), 삼학(三學) 등의 교리이다. 이것들은 부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열반에 이르는 훈련과정으로 가르친 것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실현 논리로 자아 완성과 이상실현을 위한 교육 실천과정이다.

팔정도의 교육내용은 감각을 훈련시키고 진실한 세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하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팔정도는 도덕적인 사고와 행동, 지적인 자율을 강조하며, 또한 정신적인 훈련과 의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서적으로, 발달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학습으로는 물론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들이다.

팔정도가 자신을 성숙시키는 입장이라면 사섭법은 바람직한 사회상을 이룩하게 하는 팔정도의 실천방법으로, 보살이 고통세계의 중생들을 이끌어 들이는 네 가지의 방법으로서, 어린이들이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해주고 이웃끼리 서로 인화하게 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다.

육바라밀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여섯 가지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의 수행의 의미를 넘어,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이타행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며, 삼학은 지, 정, 의에 걸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덕목으로 중요하다. 삼학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정서적 안정을 얻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앞장선다.

(2) 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개인의 발달 수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법을 설하는 수기설법은 지혜의 발달에서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의 인간적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는 불교의 교육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의 모두가 문답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대화 속에는 수준에 따라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나 인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비유법은 사람들을 쉽게 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렵고 생소한 불교적 관념의 세계를 쉽게 구상화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설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불교사상을 이해하게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인연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깨닫도록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거나 반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불교사상으로 본다면 인연법은 무아사상(無我思想), 즉 연기(緣起)의 원리에 의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타인의 결점을 관용하고 이러한 관용심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보살행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와 같이 수준에 따른 교육 방법은 현재 어린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차가 크다. 그래서 어린이교육은 어

린인들의 다양한 인지 수준에 맞추어 차별화된 개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교육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육체의 활동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정신의 활동은 육체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은 한 본체에 존재하는 양면성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즉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이 육체로 실천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행한 것들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부조화를 겪고 산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많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수행의 일종인 명상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의 명상법은 여섯 가지 문(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미혹에서 오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기쁨, 공포, 애정,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을 올바르게 통찰하여 자신의 바른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되어 안정을 찾게 하고, 자애롭고, 순수한 정서 상태 즉 '사무량심'의 거룩한 마음을 체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불교 명상은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명상을 통하여 주관적인 체험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또한 감정조절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

2. 어린이교육의 실천 장소

1) 가정에서의 교육

어린이들은 삶의 바탕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가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역할은 어린이의 종교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불교적 교육환경 및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체계적인 어린이 교육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Bushnell은 가정에서의 어린이 종교 교육의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부모 자신의 참 불교인으로 어린이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비와 인내, 부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산교육 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들은 구체적인 자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학습하므로 부모들을 일상생활을 통해 사랑과 경험, 인내와 참여, 자녀와 함께하는 공동의 불교적 신앙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로 하여금 불교와 접하게 하고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불교 사상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이

를 위하여 부모들은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법회에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여 불교행사나 여러 가지 관련 활동들을 함께 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또한 주말에 이루어지는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불교사상에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휴일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함께 여러 사찰들을 탐사하여 우리의 역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재나 역사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도 어린이들에게는 탐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얻게 한다.

또한 가정에서 작은 불단을 설치하여 고요하면서도 자비에 넘친 온화한 불보상의 도상(圖像)을 자주 접하게 하고, 조석예불을 드림으로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의식을 갖게 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관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그윽하고 깊이 있는 범패조나 낭랑하고 리드미컬한 독송조를 자주 들려줌으로서 불교적 가락에 익숙하게 것도 불교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에 불교의 전생담이나 영험담 또는 예화와 같은 이야기나 불교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거나 그림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자녀와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종교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

부모는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불교적 모방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불교교육과 포교의 핵심이다. 따라서 부모에 의한 어린이들의 훈습은 어린이들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찰에서의 교육

불교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불교이념에 기반한 적극적인 교육활동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찰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은 불교인의 확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지도자의 양성과 교역자의 발굴이라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민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찰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찰은 포교활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정기법회와 어린이 법회,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불교학교나 수련회, 어린이 수계식 등이 있다.

정기법회는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참여함으로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가족들과의 법회 의식과 가정에서의 불교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종교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들은 어린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가족들 간의 종교적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게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법회는 매주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갖는 어린이 법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승가를 이해하게 되어 불교 전반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법회에서 만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매주 실시되는 어린이법회를 통한 어린이들의 활동은 부처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의견들을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것들은 장래 건전한 불교인으로 커 나가는데 밑바탕이 된다.

또한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불교학교나 수련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포교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은 마음의 안정과 고요를 얻게 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독립심과 적응력, 강인함을 기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나아가 사찰에서는 어린이 수계식 등의 불교 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수계는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이들은 이를 통하여 부처님의 제자라는 굳은 각오와 긍지를 심게 된다. 아직 어린이들이 판단 능력이나 신심이 수계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수계식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의의를 되새기게 해야 한다.

3) 어린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불교 어린이 교육기관은 재원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심성을 심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불교 어린이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가장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 어린이 교육기관을 통해 불교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외적요인으로서 어린이 교육기관이 불교적 환경구성과 독자적인 불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내적요인으로서 불교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다. 즉 포교를 위한 불교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불교적 환경은 물론 불교적인 교육접근을 위한 교육자의 불교적 인격과 자질, 능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종교성 형성은 주위의 바람직한 종교적 환경과 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종교적 이해를 가진 사람의 지도하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어린이 교육에서 교사는 줄탁(峯啄)의 비유로 볼 때, 본질적으로 학생의 마음속에 감겨있는 눈을 떠 각성하게 함으로서 인격적으로 낫은 껍질을 벗도록 적시에 심성의 문을 두드리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리아타의 실천으로 교사자신이 보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불교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삶의 등불로서 어린이들의 앞길을 밝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어린이교육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불국 정토(佛國淨土)의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정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외적요인의 하나인 환경은 불교적 색채를 띤 자연스런 실내외 환경구성으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훈습이 될 수 있도록 꾸민다. 이외에 교육계획안과 교재·교구들도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적 요인이 포함된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III.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 방향

1. 불교와 현대 어린이 교육 접목

현대 어린이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위시하여 성장 위주의 서양 과학기술 문명의 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나 대안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의 어린이교육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 서양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인간 및 아동발달의 근간이 된 서구 사상의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동양의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불교 어린이교육은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곧 인간 존재에 대한 끝없는 탐색, 현실과 이상(理想)으로서의 어린이 교육의 목표 및 가치, 진정한 어린이교육을 위한 내적(內的) 세계와 현실의 인간과의 상보적인 입장 등을 포괄하는 동양의 불교이론에 대한 학문적 탐색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불교와 현대 어린이교육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동·서양 발달이론의 학문적 접목이다. 이것은 협소한 문화적 관념 속에서 진부한 방식으로 손쉽게 학문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또한 서양 학계에 우리의 전통적 사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린이교육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에 일치하지 않는 서양 사상의 아동교육 제반(諸般) 현상들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검증 연구에 머물러,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이 사회에 환원되어 올바르게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그러한 연구 결과가 여과 없이 우리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삶과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 토착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두 가지 맥락을 바탕으로 불교와 현대 어린이교육을 접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불교 어린이교육의 가치적 측면을 발달에 적절한 교육과 다문화에 적합한 어린이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발달에 적합한 교육

현대의 인간·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해서 그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인간 발달의 생득적인 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좀 더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보상과 벌, 즉 환경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내적인 사고의 힘으로 중시하기도 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기론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유전·환경·개인의 의지는 인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의 발달 과정을 조절해 나가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의지가 서로 서로 복합 상호작용 하는 것¹⁰⁾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즉 신체적 특성, 정신·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의 유전이란 주장은 불전을 통한 연구로 입증된 바이다. 즉, 인간이 그의 부모로부터 신체적 특성을 이어 받지만, 윤회 의식의 본질인 임신에서 신생아의 신체적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적 특성은 그의 과거 행위에 일치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전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지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과 개인의 의지라고 본다. 주변 환경은 인간의 의지를 도와 보다 더 나은 발달을 이룩할 수 있으나, 불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이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의지의 긍정적인 면은 인간이 최고의 경계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길이 열려 있어도 인간이 자신의 힘과 열정을 통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길을 걷고자 맹세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하며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지의 부정적인 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것을 쫓는 행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회에 매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렇듯 연기적인 불교의 인간관에서의 어린이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린이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파악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상은 현대교육에서 말하는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가치를 둔다.

불교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지혜를 열어 주는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상태 또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인정하여 개개인의 근기(根機)에 따라 적합하게 가르친다는 ‘수기설법(隨機說法)’을 방법적 원칙으로 했으며, 이것은 현대 어린이교육에서 중시하는 교육방법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숨 쉬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 했으며,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형과 정서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린이·교사·학부모 모두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신뢰를 줄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사상을 배격하고 서양의 교육 사상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10) J. C. Marek, A buddhist theory of human development. In R Murray Thomas Eds. Oriental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Peter Lang Publishing, 1988, pp. 75-115.

보다,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불교와 현대 어린이교육을 접목하여 불교의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다문화에 적합한 교육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지구촌', '국제화', '세계화'라는 용어와 함께 현대 어린이교육에 있어서는 다문화 교육 또는 반편견 교육과 같은 시대적·문화적·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어린이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린이교육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서로 특성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래집단 속에서 서로 상호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¹¹⁾

즉 기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및 편견에 도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유아기부터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편견의 영역으로는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성애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기부터 이러한 다양한 편견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¹²⁾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가 만 2세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두됨으로서 유아기 때부터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¹³⁾이 더욱 대두되었다. 실제로 Katz(1982), Katz & Kofkin(1997), Van Ausdale & Feagin(200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기에 인종적 차이를 인지하고 대부분의 3~4세 어린이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종에 대한 개념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적용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생활영역 중 '사회현상과 환경'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에 관심 가지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및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른 나라 사람과 그들의 생활 풍습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편견 없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⁴⁾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인간은 모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며 피부색, 성별,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인정받고 교육받아야 하며 서로의 독특성이 공동체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¹⁵⁾ 부연하면, 인간은 민족이나 문화, 종교,

11) Morris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7th ed.), Prentice Hall, 1998.

12)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2004.

13) Derman-Sparks & The ABC Task Force,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89

14) 이영애·이현숙, <교육부 「유치부 교육활동 지도 자료」의 「다문화 교육내용」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2002, pp.53-72.

15) Kendall, Diversity in the Classroom, Columbia University, 1983.

성, 사회계층, 장애,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교육의 가치를 살펴보면, 종교 교육은 정신보다는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데, 특히, 어린 어린이의 정서는 개념적 혹은 인지적 체계보다 종교적 훈련을 받을 준비가 더 되어 있으며, 성인들의 정서와 유사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식탁에서 감사기도를 하는 네 살짜리 어린이는 기도에 대해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갖게 될 종교적 가치의 일부분이 되는 감사함과 고마움의 감정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⁶⁾.

이에, 연기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불교는 다문화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사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경전인 『화엄경』에서의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연기의 세계는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며, 원시경전에 있는 『육방예경』에도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여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발원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단순한 예경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밀한 유대관계에 대한 노력이 깔려 있다. 특히 사섭법(四攝法)은 보살이 고통 세계의 중생을 이끌어 들이는 네 가지 방법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게 해 주고 이웃끼리 서로 인화(人和)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 어린이교육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해 줄 것이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자칫 빠지기 쉬운 현대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서로 돕는 법을 배워 나가는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적합한 교육

1)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1) 교재·교구 연구 및 개발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신세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환경이며 동기를 유발시키고 신나고 즐겁게 교육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불교 어린이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재·교구를 잘 활용하는 것은 불타의 가르침을 어린이의 몸에 맞는 방편으로 형상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곧 난해한 경전과 심오한 불법을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시하여 불교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어린이교육에서의 교재·교구는 어린이들의 사고 체계에 보다 근접하여 불교 사상의 핵심을 어린이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이들이 불교를 체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불교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6)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를 위한 불교 경전의 영상 매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어린이를 위한 교재·교구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불교 어린이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교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은 어린이교육기관에서의 일과 중 불교인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 스며들어, 어린이의 통합적인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서 ‘놀이 지능(Play Quotient, PQ)’이 제안되고 있는데, 불교 어린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불교 이론과 철학을 기본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의 PQ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발달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제공 되어야 한다.
-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은 경전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놀이’와 연계한 것이어야 한다.
-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은 신앙과 학문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지고 구성되어야 할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특히 불교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찰을 통한 전통 문화 프로그램, 또 자연과 하나 되는 산책 프로그램,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다문화에 적합한 불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찬불동요를 통한 불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등 불교의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불교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중요하다.

2) 교직자의 불교교육과정 이수 및 교육적용

불교 포교는 불교 어린이 교육자들에게는 주어진 사명감이자 종교인의 신념이다. 따라서 불교의 포교를 위한 어린이교사들은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여래의

17)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방법론2》, 서울: 조계종 출판사, 2001.

자리에 앉아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말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처럼 자기 혁신, 즉 자각을 바탕으로 긍지를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불교 어린이교육기관에서는 일반 어린이교육 과정에 불교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불교적 심성이나 적극적인 태도는 불교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된다.

어린이들은 불교 어린이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심을 갖춘 교사를 대하게 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교사의 역할을, 불교 선사들의 공안의 사상들을 적은 『벽암록』제 16칙에 ‘줄타 동시(啐啄同時)’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스승에게는 제자를 위하여 참되게 ‘타’를 해 줄 수 있는 안목과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제자 또한 스승을 존경하고 학업과 인격도야에 전념하여 언제나 ‘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서로가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¹⁸⁾하며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모델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중요한 시기에 잘 이끌어주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직자가 대학에서 불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학에서는 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과정을 알차게 선별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현장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욱 발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교사가 불교 어린이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합·적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실제 불교 어린이교육기관에 적합한 불교적 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3) 불교와 어린이교육에 바람직한 환경구축

아동기는 주변의 환경을 흡수하여 자신의 삶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로 감각적인 경험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주변세계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어린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불교 어린이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필요한 선행 작업의 하나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것들은 어린이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불교 친화적 환경구성의 예이다.

- 강당에는 불상과 탕화 등 법당과 강당을 겸한다.
- 입구나 복도에 불교 소품을 장식하고, 창문에도 부처님이나 동자 스님, 연꽃, 코끼리 등의 모양으로 시트지 작업한다.
- 실외 놀이터 주변에 모형의 큰 탑을 조성한다.

18) 계환,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서울: 시공사, 1997.

- 각 반에 반야심경과 어린이오계, 공양발원문을 예쁘게 꾸며서 벽에 부착한다.
- 각 교실의 흥미 영역에 불교적 환경을 구성한다.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교재 및 교구들을 각 영역별로 배치하여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속에서 불교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미술 활동 시 그림이나 점토, 종이접기 할 때 불교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해 본다.
- 유아교육기관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부분적으로 불교적 색채를 구성 한다.

IV. 결 론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는 종교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에 불교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함으로써 장래에 성숙한 불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함양하고, 불교적인 삶의 방법을 형성하고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불타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이상사회인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에 관해 살펴본 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불교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며, 이어서 시대에 부합하는 불교의 기본 이념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불교 어린이 교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기론(緣起論)적 관점에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관점에서 발달에 적합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과 불성 발현을 도와야 한다.

셋째,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태도를 갖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인(賢人)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 어린이 교육의 교육과정(curriculum)은 사찰과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현대 어린이 교육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불교인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발달과 가치에 적합하고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제적인 교육과 포교 활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과 어린이 교육기관, 가정, 나아가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적용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델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물리적 환경과 교사를 통해, 그리고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교 어린이 교육과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불교 어린이 교육을 전공하고 몸과 마음이 건전한 불자로서의 전문가 양성일 것이다. 능력 있는 불교 어린이 교육 전문가는 불교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어린이 기관의 물리적 환경구성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며,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사찰에서는 스님과 불교 어린이 교육 전문가의 협력으로 기관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불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¹⁹⁾’으로서 또 다른 ‘종교적 교양을 갖춘 인간’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질 때, 어린이들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어린이들의 마음은 점차 불법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 참 나를 알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 다함께 잘 사는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불교 이론과 종교적 신심을 병행하여 참다운 불교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어린이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 포교는 지구촌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루어지는 세계화 추세에서 우리의 자아정체감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의무이며, 특히 불교 어린이 포교는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의 전인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즉 불교 어린이 교육은 미래에 바람직한 인간교육과 새로운 발달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에 맞는 교육을 제시할 것이며, 불교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포괄하고 있고 인간의 심층 심리학적 인 인성구조에 그 이론의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 어린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 강덕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초등 7차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계 환,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서울: 시공사, 1997.
- 고기도 저, 홍사성 역, 《불교 입문》, 서울: 우리출판사, 1988.

19) 고진호, <제7차 교육고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종교교육학연구》 13권, 2001.

- 권은주, <불교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모델-부처님 오신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논총》 제10집, 1991.
- ,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동국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편, 《교육문제연구》 7권, 1992.
- , 불전설화의 유아 교육적 가치 탐색 -자타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 《불전설화와 유아교육》, 서울: 불광출판사, 1996.
- , <인간(아동)발달 및 교육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불교 대 Vygotsky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 권리학회 편,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1997.
- , 《불교아동학개론》, 서울: 양서원, 1998.
- ,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 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 4(2), 2000.
- , 《불교 유아교육 현장 지도자를 위한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 서울: 양서원, 2001.
- , 《어린이들의 불성 발현을 위한 불교 유치원 통합교육활동 프로그램》, 양서원, 2001.
- 권은주·강성희, 《불교생명존중 유아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3.
- 권정임,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4.
-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 출판부, 2002.
- 김정련, 《유아를 위한 불교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부다가야, 1994.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편저, 《포교방법론2》, 서울: 조계종 출판사, 2001.
- 오카노 모리아 저, 김세곤 역, 《불교 심리학 입문》, 서울: 양서원, 2003.
- 박선영, 불교적 교육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 ,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 출판사, 1989.
- , <불교와 부모의 자녀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학술 세미나.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83.
- , 《“불교와 평화교육” 평화·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 , <불교적인 유아·아동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불교학》 제21집, 1996.
- 백경임, <불교의 유아교육관과 유아교육 목표>, 《월간법회 34》, 한국청년 승가회, 1987.
- , 불교가정 아동의 부처님 개념 사고발달과 인지발달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상응부 25권.
- 오형근, 《불교의 胎兒觀》, 석림, 1997.
- 유영란, 불교 어린이 법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2004.
- 이대균, 《3·4·5세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 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1.
- 이연섭, 《유아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1998.
- 이영애, 이현숙(2002). <교육부 「유치부교육활동지도자료」의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

어린이 미디어 연구》 1, 2002.

이지중, <훈습의 교육적 의의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 제10권, 2000.

이학주, <법화경의 교육사상 연구 -이상적 교사상의 모색->, 《교육논총》 제15집, 1995.

이정태혁, 《명상의 세계》, 서울: 정신세계사, 1987.

—, 《붓다의 호흡과 명상》 I, II, 서울: 정신세계사, 2001.

최승천, 불교포교에 있어서의 대중매체 활용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한선각, <포교적 측면에서본 불교유아교육의 오늘 -불교 포교의 유아교육은 필요하다.>

《대원》 68호, 1988.

현 숙, 《유아교육에서의 통합적 교육과정의 적용》, 京福大京福論叢, 1999.

佛教保育의 基本原理.(昭和44年8月20日).佛教保育講座 第一卷. 日本佛教保育協會 編. 鈴木出版株式會社.

佛教保育의 實踐原理.(昭和44年8月20日).佛教保育講座 第二卷. 日本佛教保育協會 編. 鈴木出版株式會社.

佛教保育의 實踐活動.(昭和44年8月20日).佛教保育講座 第三卷. 日本佛教保育協會 編. 鈴木出版株式會社.

Ann Miles Gordon and Kathryn Williams Browne, *Beginnings & Beyond: Founda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6/E, Delmar Learning, 2004.

Bedrova, E., & Leong, D. J., *Tools of the mind: The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ntice-Hall, 1996.

Carol Gestwicki,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Curriculum and Development in Early Education* 3/E, Delmar Learning, 2006.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89.

Evelyn A. Petersen, *A Practical Guide to Early Childhood Curriculum*, Allyn & Bacon, 2003.

Jaipaul L. Roopnarine & James E. Johnson,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4/E, Prentice Hall, 2005.

J. Amos Hatch, *Teaching in the New Kindergarten*, Thomson Delmar Learning, 2005.

J. C. Marek, A buddhist theory of human development, In R Murray Thomas Eds., *Oriental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Peter Lang Publishing, 1988.

Katz, P., Development of children's racial awareness and intergroup attitudes, In L. G. Katz(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orwood, NJ: Ablex, 1982.

Katz, P. A. & Kofkin, J. A., Race, gender, and the young child. In S. Luthar, J. Burack, D. Cicchetti, & J. Weisz(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risk and pat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Kendall, *Diversity in the Classroom*,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1983.

Morris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7th ed.) N. J.: Prentice Hall, 1998.

Rogoff. B., *Apprenticeship of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Van Asdale. D. & Feagin, J. R., *The first R: How children learn race and racism*,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1.

Vygotsky, L. S., *Mind and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원고접수: 2006년 11월 12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15일

연구자 소개: 권은주

① 전공: 유아교육 / 소속: 동국대학교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불교 어린이 교육과 프로그램

③ 주요논저: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불교아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수매체활용연구>, <생명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탐색>

④ E-mail: kej@mail.dongguk.ac.kr

Abstract

A Study on Advisable The Futur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and propaganda's Course

Kwon, Eun-Joo(Dae Won)

Profess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out the importance and objectives of th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and propaganda. The study also suggests the practical methods and programs later on.

Buddhist philosophy settled deeply in Korean culture since the Three Kingdom era and affected our ideology ever since therefore, Buddhist philosophy is well suited to act as a conceptual foundation stone for our children to establish their identity in order to build a stronger society in the future. And this notion includes the need for the merge of Buddhism and childhood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am taking a broad yet general no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Buddhist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pecify it as below:

1. The doctrines of Buddha will be applied to the present education philosophy with its focus in the Buddhist Scripture. The Noble Eightfold Path, the Six Perfections, the Four Basic Standards, and the Three Learnings (Sam-Hak) from the Scripture will become the foundation of education philosophy.
2. Th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will become an active education and propaganda system according to the children's development stages that fulfills the expectations of future society.
3. Th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will be applied not only in the temples but also at the education institutions and homes. Thus, the system needs to obtain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reflecting Buddhist philosophy.

As the study suggested, th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and present education shall not be applied separately but merged together. This will naturally lead to training new Buddhists; moreover, will positively circulate its education and propaganda continuously.

The Buddhism is not an alternative solu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occurring in present society, but it is the essence. The Buddhism suggests us to look back in one's life and provides solutions for all man to live life fully.

Key words : The Buddhist Childhood Education, Propaganda, Buddhism, Three Learnings (Sam-Hak)